

2022 인천 독서대전 프로그램 공모전

2 우연히 받은 티켓

⑦ 추진배경 및 목적

주변을 둘러보면 독서를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소에 독서를 하는 사람은 꽤 많은 책을 읽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일 년에 한 권조차 보지 않는 사람도 많다.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독서량은 양극화가 정말 심하다.

본인 또한 책과 친하지 않았다. 우연히 표지가 예쁜 어떤 책에 관심이 생겨 읽게 되었고, 책은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렸다. 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그 이후로 독서를 많이 하게 되었다. 만일 그날 책이 벽에 가득한 서점에 가지 않았다면, 그 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나는 원래 그랬듯 책을 영원히 읽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을 책과 친하지 않았던 사람을 독서의 세계로 이끄려면 우연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왜 책을 읽지 않을까? 애초에 그들은 ‘책’이라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읽고 싶지 않아도 반강제적으로 교과서를 통해 교육을 받아왔고, 그것이 평균적으로 10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에 책에 대한 거부감이 새겨져 있고, 어른이 되어서도 책을 읽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교과서의 내용도 훌륭하지만, 시종에는 마음의 양식과 뇌에 지식을 가득 채워줄 훌륭한 책들이 정말 많다. 그들은 스스로의 거부감 때문에 이런 책들을 접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책들을 추천하고 알려줘도 그들의 무의식이 거부해 책을 가까이하려 하지 않는다.

평소 책을 읽어 온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베스트 몇 권 정도는 있을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 책이라면 독서를 해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음의 울림을 줄 수 있고, 거부감을 떨쳐낼 수 있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는 책 말이다. 이번 독서 대전은 사람들을 독서의 세계로 이끌 아주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⑧ 제안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책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부감을 깨고 독서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책에 관심을 갖거나, 글을 읽는다는 행위에 어떠한 귀찮음도 느끼지 않게 아주 쉽고 흥미롭게 접근해야 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우연이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는 책의 홍보를 마치 자신의 경험담처럼 쉽게

풀어내거나, 짧은 만화의 형식으로 그려내어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게 유도하는 마케팅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키 포인트는 가벼운 접근성과 궁금증 유도이다.

프로그램은 자신의 인생 책을 소개하는 ‘추천인’과 추천인의 소개 글 중 가장 흥미 있는 것을 고를 ‘참가자’로 구성된다. 추천인은 자신의 추천 책을 단 3줄로 소개하게 된다. 3줄! 책의 핵심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한 것이어도 좋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거나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할 문구여도 좋다. 단, 책의 작가나 제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금지이다. 짧은 3줄이라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인이 작성한 글은 참가자들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웹페이지에 약간의 가공을 거쳐 소개된다. 그렇게 수많은 소개 글이 모이게 되고, 참가자가 관심이 생긴 한 추천인의 소개 글을 고르면, 그 책의 정보를 알려준다. 이때 단순히 웹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함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받아감을 유도한다. 기념품은 책의 정보가 담긴 ‘티켓’이다. 명함 사이즈의 쉽게 찢어지지 않을 두께의 종이를 사용하여 한쪽 면에는 추천인이 작성한 소개 글 3줄, 반대면에는 책의 작가와 제목, 출판사가 적힌 종이 티켓이다. 그저 종이가 아닌 깔끔하고, 추천인이 정성스레 소개한 글이 담긴 예쁘게 디자인된 튼튼한 종이라면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자신이 프로그램 참여를 추억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작은 독서 세계로의 티켓만으로도 자신이 고른 책에 대한 관심이 유지된 채 그를 읽어볼 확률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티켓뿐만 아니라 추첨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소개 글의 책을 쥐도 좋다!

이는 별달리 큰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이동하는 길목이나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작은 부스면 된다.

⑨ 기대효과

쉽고 간단하게 온라인상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독서 대전에 발을 담금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행사로도 이어진다. 책에 대한 거부감을 깨고 어렵지 않게 다가서기에 평소 책을 읽는 사람도 추천인으로서 또는 참가자로서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으며,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 또한 호기심을 갖고 책과 친해져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